

개성있는 작가 5인의 '빛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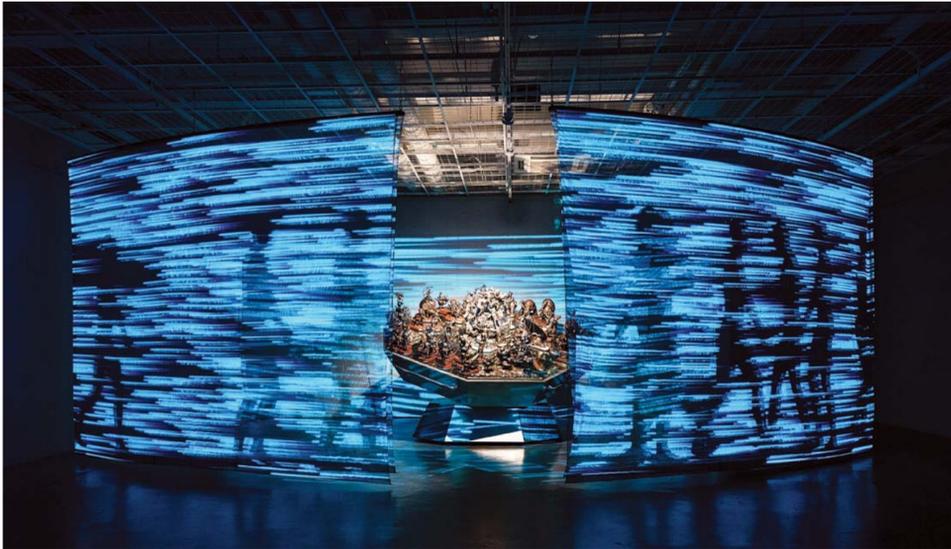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 9월까지 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 전북 김성수 등 참여



윤지선 작 'Rag face'

지난 2001년 광주시립미술관이 시작한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이 올해로 18회째를 맞았다.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초부터 작품을 기증해온 영암 출신 재일교포 하정웅 선생은 1999년 작품을 전달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청년 작가들을 지원하는 공모전 개최"를 제안했다. 2001년 첫 공모전이 시작됐고 정선휘·신석호 등 5명의 작가가 첫 해 이름을 올렸다. 이후 활발한 국내외 청년작가 중창의 노력과 실험성이 돋보이는 지역별 대표 작가를 꾸준히 발굴해왔고 이이남·구분주·김상연·나명규·신창은 작가 등 지금까지 모두 99명의 작가가 초대돼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제18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 2018'이 오는 9월 3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 전시는 지금까지 미술관 본관에서 개최하던 데서 벗어나 하정웅미술관으로 장소를 옮긴 게 특징이다. 전시는 지난 7월 18일 시작됐으며 3일 공식 개막 행사(오후 5시)와 함께 작가 추천위원들이 함께하는



김성수 작 'The Octagon x Cosmos'

'빛2018 크리틱'(오후 4시)도 열린다. 올해 초대된 작가는 개성적인 주제 의식과 실험성이 돋보이는 김성수(전북·조각), 윤세영(광주·회화), 이은영(부산·설치), 안동일(대구·사진), 윤지선(대전·평면·설치) 등 5명이다. 작가는 지역 공립미술관을 통해 21명을 추천받은 후 세미나와 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김성수 작가는 역사적 사건이나 신화 혹은 동화와 같은 가상의 세계에서 얻은 영감으로 등장인물을 조각하고 그들을 거대한 무대 위에 디오라마(diorama) 세트처럼 배치한 후 미디어 작업을 결합한 'The Octagon x Cosmos'를 전시 중이다. 전북대 미술학과 및 석사과정을 거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김 작가는 평창 비엔날레 국민공모전 최우수상, 전북 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 윤세영은 출산과 육아라는 경험을 작품

에 표현한다. 전시작 '생성지점' 시리즈에 등장하는 파란색과 가시와 같은 상징으로 드러나는 개인적 체험은 역사와 우주, 존재의 근원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돼 생성과 소멸을 가능하게 하는 지점을 찾는 시도로 이어졌다. 전남대 미술학과와 석사과정을 졸업한 윤작가는 제22회 광주미술상을 수상하였으며 올해 광주비엔날레에도 참여한다.

이은영 작가는 몬트리올 공원묘지에서 얻은 느낌을 통해 관객들에게 상상의 여지를 제공하는 '돌들 사이에서 기다린다' 등 비디오 영상 작품과 설치 작품을 함께 선보이고 있다. 쓸쓸한 분위기가 맴도는 공간을 담은 영상 작품, 묘하게 재해석된 모비, 초록빛 전구와 바닥에 놓인 작은 거울 등 인상적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작가는 영남대 서양학과, 프랑스 니스 국립고등미술원 학사와 석사과정, 스위스 제네바

고등미술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일상적 풍경이나 사물의 반복적 관찰과 기록을 통해 미묘한 차이를 발견해 온 안동일 작가는 서울 지하철 1호선 95구간의 창밖 야경을 촬영한 'scratch' 연작을 전시 중이다. 영남대에서 한국회화 전공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대구문화예술회관 올해의 청년작가 등에 선정됐다.

일상적인 것을 낯설게 보기, 영동하고 발칙한 상상에 기반한 작업을 전개해온 윤지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자신의 얼굴 사진을 재분할 해 본래 사진 이미지를 왜곡·변형시켜 새로운 자화상을 만들어낸다. 한남대학교 회화과, 동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한 윤작가는 송은 아트 지원작가, 일우사 진상 출판부본 지원작가 등에 선정됐다. 전시 해설 매일 오전 10시~11시, 오후 2시~3시~4시. 문의 062-613-539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용 사회 구조 변화 지점 들여다볼 것"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유원준 책임큐레이터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제7회 2018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주제는 '알고리즘 소사이어티'(가제)다.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로 대변되는 미래 사회의 문제를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고 해결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또한 디지털 기반 사회 구조를 폭넓은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의미가 담겨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4월 페스티벌 책임큐레이터(총괄디렉터)로 미디어문화예술 채널 앨리스온 대표 유원준(사진)을 선임하고 주제설정, 작가섭외,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원준 책임큐레이터는 홍익대 예술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오스트리아 다뉴브대학교에서 미디어아트의 역사에 대해 공부했다. 미디어아트 갤러리 및 에이전시인 '더미디어'의 대표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예술융합 프로젝트 GAS 2016-2017 총괄 디렉터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뉴미디어아트와 게임예술'(2013) 등이 있다.

유원준 책임큐레이터는 "The Master Algorithm"의 저자인 페드로 도밍고스의 예견처럼 컴퓨터는 스스로 학습하고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회의 조정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알고리즘 소사이어티는 바로 그런 사회를 말한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는 현대 사회가 지닌 다양한 문제점과 현상을 다룬 작품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사회 구조가 변화하는 지점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전시인 '알고리즘 소사이어티'에 앞서 2018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사전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큐레이토리얼 어시스턴트 교육 프로그램과 예술리서치 프로젝트를 바로 그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큐레이토리얼 어시스턴트 교육 수료생은 우선적으로 2018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운영요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예술리서치 프로젝트는 선정된 프로젝트에 한해 최종 심사를 거쳐 2018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본전시에서 참여한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11월 중 서울, 부산, 광주에서 프리뷰 전시가 진행돼 2018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영상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970. /박성천 기자 skypark@

'신과 함께 저승여행'

대원사 티벳박물관 6일부터

영화 '신과 함께'는 불교의 사후세계를 감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49재를 지나며 일곱 번의 심판을 받고 일곱 개의 지옥을 지나 다시 인간세계로 환생하는 과정을 그린다. 영화는 한국불교의 사후세계를 조명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영화 '신과 함께'를 모티브로 특별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대원사 티벳박물관은 오는 6일부터

2019년 4월 7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신과 함께 저승여행' 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불설수생경'(佛說壽生經)의 가르침에서 유래한다. 저승의 관속(官屬)과 시주해야 할 금전 등이 담긴 '불설수생경'을 중심으로 생전의 자신의 죽음을 연습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예수재 의식을 체험해볼 수 있다. 또한 불교회화의 중요한 장르이자 사후세계에 대한 염원이 담긴 '시왕도'(十



죽음체험실
王圖·보물 1800호)를 감상하며 당시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문의 061-852-303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찬주 장편 '칼과 술' 보성군 흠피 연재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대하소설 '이순신의 7년'(전 7권)을 발간한 바 있는 정찬주 작가(사진)가 보성군 홈페이지에 2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장편역사소설 '칼과 술'을 연재한다.

연재소설의 주인공은 이순신 장군과 고락을 함께 했던 보성 출신 선거이(宣居怡) 장수로 작가가 '이순신의 7년'을 집필할 때 가장 주목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선거이 장수는 20세에 보성군수 추천으로 선전관이 되고 21세에 무과급제한 후 함경도 북병사 이일의 계청군관이 되어 이순신을 만난다. 선거이는 조선보 만호였던 이순신이 녹둔도 전투에서 패전의 누명을 쓰고 하옥됐을 때 술을 권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했으며, 진도군수로 부임해 가서는 이순신의 한산도대첩에 참전했고, 전라병사로서 권율의 행주대첩에 참전해 공을 세운 장수다. 당시에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선거이'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였다. 보성 출신인 정 작가는 "임진왜란 7년 전쟁 속에 숨겨진 이순신과 선거이 장수의 칼 같은 의리와 술 같은 우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선거이라는 보성인의 참모습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 외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